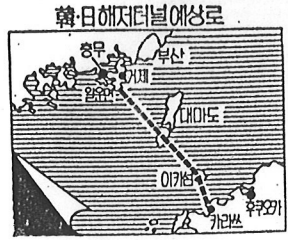


韓·日 해저터널 民間차원 本格추진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민간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산하 해저터널연구회는 한국 의 경부(巨濟)와 일본의 카라쓰(唐津)를 잇는 총연 장 2백50km의 해저터널을 북인도 서기 2000년



이전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을 세우고 지난 86년 10월 부터 건설공사 환경영향평 가를 사전연구조사 활동 을 벌이고 있다.

세계평화교수회 산하 研究會서

巨濟-카라쓰 2百50km 연결...

이 터널의 건설장비는 1백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제하이어이 건설사업단이 재정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하루에 10~15만명의 분량의 물류수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한국과 교역량의 5배 정도를 수용할 수 있

내 6개 지역에 대한 건설 조사 시추작업을 벌여 지 나달 한일은행에서 터널은 한국의 거제도와 일본의 규슈(唐津)를 잇는 카라쓰(唐津)를 직선으 로 연결하게되며 양쪽 끝 부를 두 관공관과를 놓아기 위해 교량으로 설치된다. 터널의 형태는 자동차가

21C前 착공 경비 百20兆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바 람이 있지만 터널이 길고海底이기 때문에 환기(換氣)에 어려움이 많아 전 기자동차 集電式전기차 등 차전기철도 또는 해일들의 형태도 검토되고 있다. 전기철도 방식을 채택하 면 일본까지 1~2시간만 에 도착할 수 있으며 浮上

式 리니이 모터카는 시속 5백km이상 속도를 낼 수 있 어 30분만에 주파할 수 있 다. 한편 한일은행과 공동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日本측의 日韓터널연구회는 지난 88년부터 日貨 4천억 엔을 들여 시추, 地表탐사 지도작성 音波탐사 磁氣탐사 작업을 벌여왔으며 지 나 88년 7월 기공식을 갖고 카라쓰에서 唐津까지 탐사터널 4백km를 뚫어놓았 다. 日本측은 지난 87년 완 공된 세이칸해저터널(혼슈-호카이도)을 사를 맡 았던 佐佐木雄次가 회장직 을 맡고 있다. 수산대 高교수는 『韓日해저터널은 국 제하이어이 건설사업의 일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념과 종교의 차이로 분열된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기 위해 구상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坤>

釜山日報 1989年 2月13日

韓日海底トンネル民間次元で本格推進

韓国と日本を連結する海底トンネル建設計画が民間次元で本格推進されている。世界平和教授協会の傘下、韓日トンネル研究会は、韓国の慶南道の巨済島と日本の唐津を結ぶ総延長 250kmの海底トンネルを、遅くとも西暦2000年以前に着工し、2015年までには完工させる計画をたて、去る86年10月から地質探査、環境影響評価などの事前研究調査活動を始めている。

このトンネルの建設経費は120 兆ウォンに達すると推測されるが、国際ハイウェイ建設事業団が財政支援す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このトンネルが完工すれば一日に10トトラック10万台の分量の物量輸送が可能で、現在の韓日両国の交易量の5倍程度を受容することができると展望されている。

韓日トンネル研究会の釜山支部（支部長、高冠瑞・釜山水産大学教授）は、傘下に4つの部会を構成、第1部会は理念・文化・法律・経済など社会科学的な準備業務を受け持ち、第2部会は地形・地質・水理の研究、第3部会は路線・設計・施工、第4部会は環境・気象・海象の研究を受け持ち、各該当分野の専門家20余名が研究活動を始めており、昨年8月から慶南道の巨済郡内の6地点に対する地質調査の試錐作業を始め、先月31日に完了した。

トンネル研究会によれば、このトンネルは韓国の巨済島から日本の対馬～壱岐島～唐津を直線で連結し、両端は観光の効果を高めるために橋梁を設置する。

トンネルの形態は自動車が直接走行できるのが望ましいが、トンネルが長く海底のため換気の困難が多く、電気自動車、集電式電気自動車、電気鉄道、モノレールなどの形態も検討されている。

電気鉄道方式を採択すれば、日本まで1～2時間ほどで到着することができ、浮上式リニアモーターカーは時速 500km以上の速度を出すことができ、30分で走破できる。一方、韓国側と共同研究作業を始めている日本側の日韓トンネル研究会は、去る81年から日本のお金で4千億円を用いて、試錐、地表探査、地図作成、音波探査、磁気探査などを始めており、去る85年7月に起工式をして唐津から壱岐島まで探査トンネル400mを掘っている。日本側は去る87年完工した青函海底トンネル（本州～北海道）工事を受け持った佐々保雄氏が会長席を引き受けている。水産大の高教授は「韓日海底トンネルは国際ハイウェイ建設事業の一環として推進されており、理念と宗教の差異によって分裂した人類を一大家族にまとめるため構想されたものである」と趣旨を説明した。

世界平和教授会傘下の研究会で21世紀前着工

巨済－唐津 250km連絡………経費 120兆